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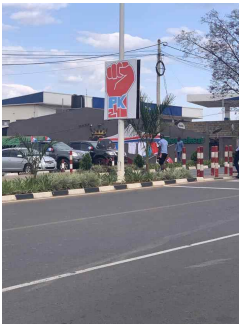
6월 르완다 소식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2절)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닮는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작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이라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하시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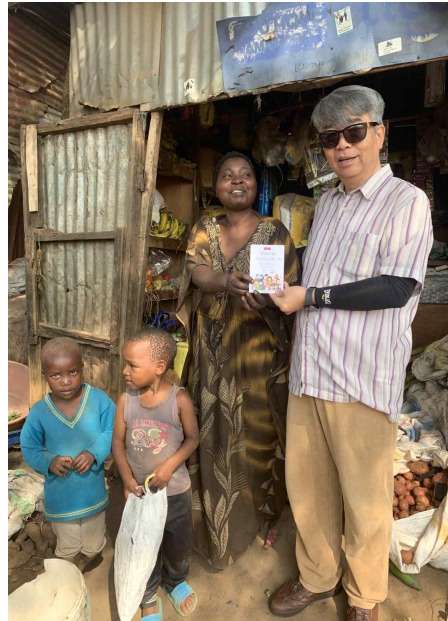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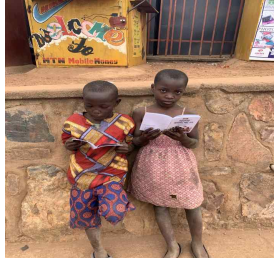
(소식 및 기도 제목)

1. 아프리카 르완다도 지금 무더운 건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먼지와 황토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다음 달 15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거리마다 홍보물이 걸려있습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르완다 대통령 선거가 잘 마무리되고 르완다 경제와 사회적 안정이 유지되도록 중보기도 해 주세요.



2. 6월 9일 주일 르완다예배(1, 2부)에 참석해서 주신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증거 했습니다. 처음은 아니지만 1, 2부 6시간의 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열정이 넘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중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7월 6일 결혼식 예배에도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교단 노회장과 목사님과 하객들이 참석하는 예배에도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님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3. 현지인 전도를 위해 복음 만화를 낱아르완다어로 번역하여 출판했습니다. 제작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교회와 개인 후원으로 잘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일에 참여해 주신 교회와 개인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 만화 전도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복음 만화는 글을 아는 아이들부터 성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만화 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받는 이들도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르완다 강 일 응 선교사